

01 교회소식

영혼 위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최근 우리 교회 성도들은 천국과 지옥 간증 설교를 통해 실존하는 영의 세계를 체험하며 믿음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02 생명의 말씀

신뢰

육신의 생각을 깨뜨려 버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관받으며 사랑이 커지는 만큼 주님과 온전한 신뢰 관계를 이룰 수 있다.

03 기획특집

인생을 밝히는 생명의 등불

어둠을 밝혀 주는 등불과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생을 비추어 명철의 길을 제시하는 이재록 목사의 칼럼을 소개한다.

04 권능의 역사

의학을 통해 밝혀진 하나님 권능

멕시코에서 열린 WCDN 제10회 국제 기독의학 콘퍼런스에서 드러난 호응을 얻은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통한 치유 사례들.

# 만민뉴스

제588호 2013년 6월 30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 이재록 목사 저서 ‘천국’, ‘지옥’ 입증하는 간증 설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녀들과 세세토록 참 사랑과 행복을 나누며 살아갈 아름다운 천국을 예비해 주셨다. 반면 끝까지 주님을 영접지 않거나 믿는다고 하면서도 범죄한 영혼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왼쪽 사진)는 무수한 금식과 기도로 천국과 지옥에 대해 자세히 풀이받아 『천국』(상)·(하)와 『지옥』을 발간해 전 세계 수많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

세계 선교의 초석이 된 사도 바울은 낙원을 본 뒤(고후 12:2-4) 천국 소망 가운데 죽도록 충성하며 성령의 권능으로 땅 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됐다. 성경 곳곳에 영의 세계에 대해 기록돼 있는데, 천국과 지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곳이다.

최근 우리 교회에서는 어린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천국과 지옥 간증 설교를 통해 경각심을 가지고 더욱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불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힘쓰며 충성함으로 소망 가운데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

지난 6월 16일에 이어 23일 주일 대예배 시 신동초 목사는 요한계시록 21장 10-11절을 본문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에 이끌려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을 본 간증을 전했다.

신동초 목사 신 목사는 “요한계시록 21장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은 너무 밝고 아름다운 빛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생명수 강이 원줄기에서 가지처럼 수없이 뻗어져 나와 있었으며, 휘황찬란한 보석 같은 빛들로 찬란한 가운데 성도들의 집들이 각각 다른 빛의 색상으로 반짝거리고 있었다.”고 묘사했다. 또 “그 아름다운 곳을 예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지난 6월 7일과 14일에는 이희진 목사가 금요일예배 시 천국과 지옥 체험에 대해 자세히 전했다. 하루 9시간에 달하는 무수한 기도를 쌓아온 이 목사는 이미 소천한 만민 성도들의 천국 집과 낙원에 있는 대기 장소 면회실에서 만난 성도들과의 대화를 전했다. 끔찍한 지옥의 참상에 대해서도 간증했다.



이희진 목사

지난 6월 9일 주일 대예배 시에는 이희선 목사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과 아랫음부에 갇혀 고통받는 영혼의 참상을 전하며 애통의 눈물을 지었다. 성령을 휘방, 거역, 모독한 사람, 자살한 사람, 동성애자들이 받는 형벌과 숨조차 쉴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운 유향 못의 형벌 등에 대해서도 전했다.

또 먹이를 찾아 헤매는 하이어나와 같이 귀신들은 어떻게든 사람들을 자살하게 만들려고 하고, 누군가를 자살하게 한 후에는 잠시 고통에서 힘을 얻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김수정 목사, 김승신 전도사, 한주경 찬양선교사가 천국 간증 설교를 했다. GCN 방송(www.gcnetv.org)과 인터넷을 통해 간증을 들은 사람들은 “지옥에 가지 않도록 지옥의 참상에 대해 밝히 알려 주신 이재록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천국 소망이 더욱 넘치며, 선과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



이희선 목사

의 마음이 느껴져 성결을 더욱 사모하게 됐다.”라고 고백했다.

케냐 나이로비만민성결교회 정명호 목사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천국과 지옥을 실감하며 믿음과 소망이 더하는 감동과 축복의 시간이었다.”라고 전했다.

이스라엘 강하나 선교사는 “예루살렘, 아쉬도트, 브엘세바, 나사렛 등 이스라엘 여러 지역에서 많은 사람이 함께해 간증을 들으며 놀라워했고 믿음이 더해졌다.”고 전했다.

천국과 지옥의 메시지로 전 세계 무수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후 35년 동안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 왔다. 한 영혼도 잃지 않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심정으로 전 세계 만민을 구원하고자 지금도 산상기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전 세계 15개 언어로 발간된 이재록 목사 저서 『천국』(상)과 『천국』(하), 『지옥』을 참고하기 바란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 신뢰

“사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사나이다” (마태복음 16:16)

크고 놀라운 권능을 행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가지각색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말하는가 하면,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다시 왔다.”, “많은 선지자 중 하나다.”라고 했지요. 반면 “귀신들렸다.”는 등 악한 말로 비방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제자들은 선한 고백만 예수님께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했지요. 이 고백은 베드로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므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에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오점을 남기기도 했지만 주님의 부활 승천을 목도한 후 성령을 받고 그 신뢰가 온전해졌습니다. 그래서 큰 권능을 행하며 살기등등한 백성과 관원들 앞에서 담대히 주의 복음을 외칠 수 있었지요. 베드로는 주를 향한 사랑과 신뢰가 있었기에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과 온전한 신뢰 관계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1. 육신의 생각을 깨뜨려 버려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범사에 자기 기준에 맞춰 판단하고 자기 유익을 좇아 생

각합니다. 옳은 일을 잘못이라고 비난하고 선한 일을 악하다고 오해하면서도 자기 생각이 틀린 줄 모르지요.

쉬운 예로, 평소에 호감을 갖고 있던 상대가 어느 날 갑자기 인사를 잘 받아주지 않고 외면했습니다. 이때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내게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있나?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주 무례한 사람이네.’ 하면서 상대를 좋게 여겼던 마음이 순식간에 변합니다. 누군가 그런 것이 아닐 거라고 하면 “내 눈치가 얼마나 빠른데, 척 하면 척이지.” 하고 단정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당시,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선한 사역을 악하게만 생각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들려 꼬부라진 채로 살던 여인을 고쳐 주시자 이를 본 회당장은 “안식일에는 노동을 하면 안 되는데 왜 안식일에 귀신을 내쫓아 주는가?” 하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합니다.

그는 하나님 권능이 나타난 것도, 비참한 삶을 살던 사람이 하나님 사랑을 체험한 것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치료받았어도 안식일을 범했다고 싫어했을 까요? 그는 사랑과 선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의와 틀로 판단하면서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고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신뢰를 이루기 위해서는 육신의 생각을 철저히 깨뜨려 버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는 말씀처럼, 영의 생각을 해야 영의 마음을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선한 것을 선하게 보지 못하는 자신의 악을 발견해 철저히 버리고 범사에 영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 2.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그 음성 들을 주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악을 버리고 육신의 생각을 버리는 만큼 성령의 주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우칠 수 있지요.

귀신들린 딸을 가진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치료받기를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고 아주 냉정하게 대하십니다. 하지만 여인은 전혀 서운해하지 않고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며 더 자신을 낮추며 끝까지 매달리지요. 예수님께서 그 겸비함과 믿음을 칭찬하시며 즉시 그녀의 딸을 고쳐 주셨습니다(막 7:25~30).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 장면을 보고 예수님은 사랑이 없으시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분의 선과 사랑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궁구하지요. ‘예수님께서 저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참으로 선한 마음으로 궁구한다면 성령의 주관 속에서 예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인이 자존심을 내세웠다면 예수님께 서운함을 품거나 낙심해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응답받을 믿음이 있었기에 변함없이 선한 고백으로 매달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끝까지 믿음을 내보이므로 응답받을 만한 공의를 채우게 하신 것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분별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의도를 성령으로 깨우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도 그 깊이가 다릅니다. 좀 더 밝히 성령의 역사를 받는다면 예수님 뜻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지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아셨기에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믿는다 하면서도 자신의 기대대로 응답받지 못하면 쉽게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심한 모욕을 받은 것도 아닌데 조금만 자존심이 상하면 변개하지요.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참 믿음이란 어떤 것인지 보여 주시기 위해 이 여인의 겸비한 고백을 끌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선한 마음으로 궁구하면 이런 예수님의 뜻도 깨우칠 수 있습니다. 그 선하신 뜻을 깨우쳐 나가는 만큼 예수님에 대한 신뢰도 더 깊어지지요. 성령의 역사를 받는 사람들은 사소한 일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갑니다. 그럴수록 신뢰와 사랑이 더해져 “나도 그 사랑을 의지해 영의 깊은 차원으로 곧 들어 가리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옵니다.

### 3. 사랑이 커지는 만큼 신뢰도 커집니다

베드로는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때부터 신뢰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을 겪은 후에는 그 사랑의 차원이 달라졌지요. 사랑하던 스승이, 더구나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참혹하게 고난 당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예수님을 지켜드리기는커녕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저주하는 말까지 내고 말았지요.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어떤 책망도 없이 묵묵히 바라보셨고 처참한 십자가 처형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목도한 후 베드로의 사랑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그 사랑이 깊어진 만큼 주님에 대한 신뢰도 완전히 달라졌지요. 전에는 어린 여종 앞에서도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살기등등한 사람들에게도 담대히 복음을 외칩니다.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할 때도 그 신뢰에 추호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직 뜨거운 사랑과 굳건한 신뢰 속에 영광스러운 순교를 할 수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신 이후, 저도 아버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조금도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해도, 차마 감당하기 어려운 연단이 와도,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은 한순간도 변함이 없었지요.

개척 당시에는 많은 성도 앞에서 하나님께 7주 동안 책망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억울해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지요. 다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책망하시는지 잘 깨우쳐서 고치려는 마음과 감사뿐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허락하신 이유를 알려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저의 흔들림 없는 신뢰를 나타내 보이시므로 권능을 더해 주셨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자신을 발견하며 신속하게 변화돼 참마음을 이루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과 온전한 신뢰 관계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천국 새 예루살렘을 향해 멈추지 않고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 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3  
대표전화 02) 818-7000



- 교회버스** (교회 차량/ ☎ 02) 818-7391~5)  
주일·공요철야 각 지역별로 운행(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일원)
- 지하철**  
2호선 구로 디지털단지역(번 출구)/ 환승 5536  
7호선 남구로역(번 출구) 도보 10분
- 시내버스**  
디지털단지 오거리 정류장/503,504,571,652,5618,5619, 5626,5630,5712,5714  
연희미용고등학교 정류장 (남부순환도로)/ 651,5528 504,643,5626  
구로디지털단지역 정류장 (시흥대로)/5,51,150,505,507, 5531,5534,5601,5616,5617,5620,5621,5623,5624, 5625,5627,5633,5713,6512,6635,금천06/환승 5536  
만민중앙교회 앞 정류장/ 5536, 5615(편도), 5616(반대편 편도)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                  |                            |
|------------------|----------------------------|
| 주일 대예배           | 1부 10:00 AM<br>2부 11:30 AM |
|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 9:00 PM                    |
|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선교회 예배 | 11:00 PM                   |
| 주일 저녁예배          | 3:00 PM                    |
| 공요철야예배           | 11:00 PM                   |
| 수요예배             | 7:00 PM                    |
|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 8:00 PM                    |
|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 9:00 PM                    |
|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 4:00 PM                    |
|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 3:00 PM                    |
| 다. 일철야 기도회       |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
| 사백예배             |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가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http://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은행 1002-048-310140 (예금주 김연선)



# 인생의 등불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19:105)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밤길을 비추는 등불 처럼 복잡다단한 세상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바를 밝히 알려 주며 바른 길로 인도해 준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이 있기 때문이다.

이재록 목사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매주 창조주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 삶에 꼭 필요한 내용을 담아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등 국내 여러 일간지에 신앙칼럼을 게재하고 있다.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한 사람에게 삶의 소망을 되찾아주고, 어린 학생들로부터 청·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마음에 쉼을 주며 영혼의 참된 양식이 되고 있는 신앙칼럼 몇 편을 발췌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한다.

## 그분의 사랑은

우리는 아름다운 풍경을 볼 때나 선하고 순수한 사람을 대할 때 감동과 행복을 느낍니다.

하물며 모든 아름다움과 선,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이룬다면 그 행복은 얼마나 클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고통을 녹이는 평안함이고, 어둠을 몰아내는 밝음과 희망이며, 낙심한 사람을 일으키는 힘의 근원입니다. 또한 슬픔을 물리치는 위로와 희락이며, 고단하고 힘들 때 심신을 가볍게 해 주는 생명력의 원천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는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 4:16

## 바다 같은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5

바다에는 크고 작은 생물이 어울려 삽니다. 바다는 어떤 것이 흘러와도 다 받아들이지요. 더러운 것이 흘러들어오면 스스로 정화해 다른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사람마다 마음의 크기는 다릅니다. 마음이 큰 사람은 내 취향에 맞는 사람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을 덕으로써 포용합니다. 이런 마음이 되면 내 의견만 고집하지 않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해 일을 추진하게 되지요.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크기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는 만큼 무한대로 커져서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 쌓이는 힘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움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전도서 4:9

눈송이는 무게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가볍습니다. 그런데 이 눈송이가 쌓이고 쌓이면 나뭇가지가 휘어지고 꺾이며, 어마어마한 눈사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사소한 생각,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그 영향력이 미미한 것처럼 보이지만 쌓이고 쌓이면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가 하면 한 사람의 힘은 미약해 보여도 여러 사람이 힘을 모으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우리는 범사에 ‘이것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라도’, ‘나 하나만이라도’ 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 고운 소리와 날개

“짐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니라”  
히브리서 3:4

새의 청아한 노랫소리는 듣는 이의 마음을 상쾌하게 합니다. 또 새들은 날개가 있어서 푸른 하늘을 자유로이 날아다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하나하나를 섬세하고 귀하게 지으셨고 각각의 특색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새에게는 아름다운 소리를 주셔서 ‘찬양을 즐겨워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담으셨지요. 또 날개를 주셔서 사람이 발을 딛고 사는 이 땅과는 차원이 다른 세계가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한 마리 새를 지으실 때에도 인생들을 향한 마음과 뜻을 담으셨습니다. 그래서 새가 날아가면 자연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 마음의 향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마태복음 12:35

향기로운 꽃에는 벌과 나비가 모여들듯이 마음의 선한 향으로 인해 많은 이를 이끄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섬김과 배려, 진실한 사랑이 향기를 발하니 사람들이 그를 대할 때 기쁨과 평안을 얻지요. 선 자체이신 하나님께서도 이런 사람을 보면 매우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선한 생각을 하는 사람, 선한 말과 행실을 보이는 사람에게 집중되지요. 이 땅에서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시며, 영원한 천국에서도 하나님 보좌 가까이 머물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GCN!

**7** 주요 프로그램 안내  
2013.6.30~7.6  
July

|   |  |  |  |
|---|--|--|--|
| <p><b>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b> Words of Lif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십자가의 도 23-24</li> <li>• 온전한 십일조와 헌물 1-3</li> <li>• 사랑장 3-7</li> <li>• 지옥 2-6</li> <li>• 창세기 강해 24-28</li> <li>• 위로부터 난 지혜 1-5</li> <li>• 온전한 선</li> </ul> | <p><b>GCN TV 설교</b> GCN TV Serm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팔복 6-9 (이수진 목사)</li> <li>• 참된 지혜 (이미경 목사)</li> <li>• 새 예루살렘 1 (신동초 목사)</li> <li>• 영으로 변화 (김수정 목사)</li> <li>•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김자애 교육전도사)</li> <li>• 'GCN TV특강' - 십자가의 도 1-2 (정구영 목사)</li> </ul> | <p><b>간증 프로그램</b> Testimon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크리스천 투데이 37, 39-42</li> <li>• GCN 간증 스페셜 14-19</li> </ul> | <p><b>찬양 프로그램</b> Prais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CN 파워프레이즈[2] 11-16</li> <li>• 찬양과 경배 [3] 24, 27, 57-58, 61, 67-68</li> <li>• GCN 금요찬양 스페셜 20</li> </ul> |
| <p><b>해외성회 시리즈</b> Overseas Crusad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러시아연합대성회 1</li> <li>• 에스토니아연합대성회 종합편</li> </ul>  |  | <p>위성, 인터넷, 인터넷TV방송 A/S 문의<br/><b>1577-2073</b></p>  |  |

WCDN(세계기독교의사네트워크)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치유 사례를 의학적으로 검증해 하나님 역사를 증거하고 있다. 하나님 존재를 의심하며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의학적 증명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성령이 참임을 밝히는 귀한 도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지난 6월 14일과 15일, WCDN 주최 '제 10회 국제 기독교학 콘퍼런스'가 멕시코 톨루카 시에서 개최됐다. 24개국 350여 명의 의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특강과 치유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지면 관계상 우리 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로 나타난 치유 사례 일부를 게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한다.



## 기독교의사 모임 WCDN, 하나님 권능의 역사를 의학적으로 증명하다



### <한국 사례>

병 명 | 뇌출혈

발표자 | 채윤석 박사 (외과 전문의)



49세인 남성 환자에 관한 사례이다. 환자는 2012년 12월 13일, 병판 길에서 넘어져 응급실로 이송됐다. 그는 1991년 교통사고로 인한 우측 뇌의 혈종으로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



기도받기 전 뇌출혈 소견      기도받은 후 뇌출혈 사라짐

당일 시행한 두뇌 CT 검사에서 초승달 모양의 우측 지주막하 출혈이 관찰됐다. 추적검사에서 뇌출혈 양상이 심해지는 모습이었으나 환자는 모든 수술을 거부했다. 환자 대신 부인과 딸이 이재록 목사님의 중보기도를 받았다.

그런데 입원 일주일째 되던 날, 폐렴이 발생하고 병세가 호전되지 않자 가족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영적인 충성을 하지 못한 것을 회개했다. 2013년 1월 1일,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를 다시 받았다. 이를 후 시행한 두뇌 CT에서 지주막하 출혈이 사라진 것을 확인했다. 환자가 직접 기도를 받지 못했으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시공을 초월해 하나님의 치료 역사가 나타난 것이다.



### <멕시코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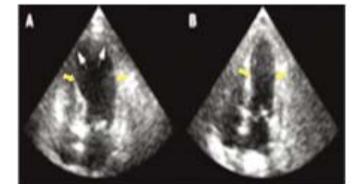
병 명 | 타코수보 심장근육병증

발표자 | 빠스트라나 피게로아 박사 (성형외과 전문의)



19세인 한 여성은 2011년 12월 14일 성형 수술을 받았다. 수술은 특별한 문제 없이 진행됐고, 수술 후 합병증 등의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를 후 갑자기 저혈압, 호흡곤란, 의식 소실 등 심부전 소견이 관찰돼 중환자실로 이송됐다. 심장 초음파 검사 결과, 타코수보 심장근육병증으로 진단됐다. 집중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

다. 그 당시 의료진은 사망 위험성이 높은 심각한 상태라고 판단했다.



환자가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가족은 WCDN 미국 디렉터 알만도 피네다 박사를 통해 한국에 있는 이재록 목사님께 간절히 중보기도를 요청했다. 예배 시 해 주시는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통해 시공을 초월한 기도를 받은 환자는 놀랍게도 2011년 12월 21일 심각한 상태에서 벗어났고, 온전히 회복돼 퇴원했다.



### <싱가포르 사례>

병 명 | 패혈증, 황달

발표자 | 데이빗 유 박사 (가정의학 전문의)



2009년 10월 14일에 태어난 막내아들이 생후 7주쯤 됐을 때이다. 고열이 지속돼 11월 30일 소아과를 찾았다. 의사는 요로감염에 의한 패혈증이 의심되니 즉시 입원해 항생제 정맥 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 항생제의 부작용이 염려됐을 뿐 아니라 크리스천으로서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치유 역사를 믿었기 때문이다.

이를 후 아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황달이 관찰됐으며 복부는 팽창돼 있었다. 아내 황광평 선교사는 이재록 목사님께 중보기도를 요청했다. 기도를 받은 아들은 열이 떨어지고 복부도 수축됐다. 그 주 처음으로 얼굴에 미소를 띠었고, 다시 한 번 기도받은 후에는 황달 증세도 사라졌다.

2009년 12월 18일에 시행한 혈액 및 소변 검사 결과 정상 이었고, 요로감염과 패혈증이 치료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떠한 약도 처방하지 않고 오직 권능의 기도로 완치됐으며 현재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



###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자녀예배, 금요차이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림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부암 1동 275-77 ☎070-8223-4191~4, 010-9818-983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 2동 109번지 백성 B/D 7층 ☎051)326-1537, 010-5521-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444-5 3층 ☎010-8020-733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104-9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구 대화동 37-1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동천동 177 시청 강 건너편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동천동 1181 온천초등학교 정문 앞 ☎062)372-1002, 010-3771-7970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167-4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의동 549-46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391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성정동 722-3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흥동 564-15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041)546-1537, 010-2672-0244
- 사령만민교회 충북 계룡시 금암동 16-4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 1동 173-11 ☎043)293-7077, 010-27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956 ☎043)211-1955,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700번지 무전산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 2동 626-1 ☎055)247-8891~2, 010-5527-207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내이동 1524-14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301-5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내동 456-12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965-1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 2동 520-20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천동 909-10호 3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1098-1 ☎054)920-4512, 010-3343-1537
- 아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주시 둔덕동 500-5 ☎061)652-8311, 010-7317-2073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해동 765-2번지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산 153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16-14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 2가 929-1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모현 1동 250-3 ☎063)853-0675, 011-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나운동 798-7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2-1(순환대로 637)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63-64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1312-4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노형동 2775-1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126-3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필피동 508-1 ☎031)485-9143, 010-5583-4697
- 인천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3-41 ☎032)863-9857, 010-7127-2073
- 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천동 698-12 ☎032)569-3835, 010-3430-3312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람동 367-4 ☎010-7103-4097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452-3 ☎031)905-2419, 010-2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길 1동 348-5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지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90-3 ☎032)528-3830, 010-3430-331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109번지 ☎031)202-8480, 010-7127-207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충리동 465-4 ☎031)635-9103, 010-7103-4097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3동 165-1 ☎031)840-2906, 010-8163-1537